

라마교와 17세기 동아시아 정국

치 메이치(중국 인민대학)

발표 요지

16세기 후반에 북원(北元) 몽골국이 정치적으로 분열한 역사로 인해 불교가 몽골 지역에 재차 부흥하였고, 1578년에 티벳 황교(黃教)의 지도자 소난가쑤가 알탄 칸과 회견하면서, 이후 수 백년 동안 라마교가 몽골을 정복하고, 몽골, 티벳, 명·청 조정 및 동아시아의 정국에 영향을 끼친 역사가 시작되었다. 17세기 초에, 온 동아시아의 정국이 동요하였는데, 명과 몽골의 대립은 명과 후금(後金, 淸淸) 간의 국운을 건 투쟁으로 바뀌었고, 티벳 황교의 위기는 5세 달라이 라마의 구시 칸 초청을 이끌었다. 내외 몽골의 여러 부(部)가 분열하거나 통일하거나 청조(淸朝)에 귀부하는 가운데 재차 대규모의 전쟁을 거쳤다. 청조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에도 티벳, 준가르 및 대만 정성공 세력, 삼번(三藩)과 같은 여러 정치집단과 대립하고 있었다. 이러한 왕조교체, 정권 간의 승부, 민족 간의 투쟁 속에서, 라마의 모습은 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. 본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해 가는 과정 속에서, 라마교 세력이 대항 혹은 영합, 주동과 피동이라는 다양한 관계 속에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역량을 쏟을 수 있었는가, 라마교가 ‘번을 제어하는 도구(馭蕃之具)’가 되면서도 또 어떻게 역사의 ‘주역’이 되었는지, 17세기 동아시아의 정치와 종교 간의 관계를 조성하였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.

コメントの追加 [u1]: 라마의 모습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

약력

〈치 메이치(祁美琴) /Qi Meiqin〉

중국 내몽고 오르도스 출신으로, 1987년에 중앙민족대학 역사학과(歷史系)를 졸업하여 역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. 1996년에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, 현재는 중국 인민대학 청사연구소(淸史研究所)의 교수로, 『淸史研究』 잡지의 주편(主編)이다. 주요 연구 분야는 청대정치사, 변강민족사이고, 연구성과는 주로 내무부(內務府) 및 내무부 삼기(三旗) 보오이 집단의 특징, 청대 변경(邊境) 통치, 청왕조의 특징 등의 학술영역에 집중되어 있다.